



권부성 위원장

권오문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 세계전통호국무예총연합회 회장 겸 대한청소년전통호국무술연맹총재로 재직 중이셔서 무척 바쁘실텐데 안동권씨 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선 대한청소년전통호국무술연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권부성 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 청소년 무술 연맹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몸을 단련하고 가꿔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들과는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의를 보면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서의 교육과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한국 제일의 무도인으로 키우기 위한 곳입니다.

사무총장: 그럼 연합회와 연맹은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요?

준비위원장: 호국을 위해서라도 전국무술자변 확대, 예를 들면 더 많은 체육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 노약자 보호, 우범지역 순찰 등을 통한 밤거리 치한 예방활동, 불우한 이웃돕기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격복심, 무에타이, 공수도, 이종격투기, 우수, 무술경호까지 다양한 조직을 아우르고 있고, 연맹 산하에 10개 단체가 있어서 1년에 7~8개 무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계 전통 무술의 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총장: 안동권씨 제 30회 청장년 체육대회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100만 안동권문의 체육대회 케치프 레이즈는 뭔가요.

준비위원장: 한 마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안동권문끼리 평소에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천의 장이 또한 체육대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성씨가 1년에 한 번씩 한 자리에 모여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성씨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권문은 벌써 30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롭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수도 서울 개최

안동권문의 자존심 100만 족친들의 화합의 장



권부성 준비위원장(왼쪽)과 권오문 사무총장

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이번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서울 청장년 준비위원들이 매월 대종회 회의실에 모여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준비위원장: 네, 지금까지 매월 한 번씩 만나서 체육대회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이라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지방에서도 잘 했는데 서울은 당연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방은 그 옛날 씨족사회의 전통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서 옆집, 이웃집처럼 십시일반 협조하기도 쉽고 또 잘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단합된 지역종친회나 파종회 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타지에서 모여 들어 생업에 바쁘다 보니 협찬하기도 쉽지 않고 단결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무총장: 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그렇게 어렵습

니까?

준비위원장: 족친 여러분들께서는 정보를 통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서울청장년회에서는 대회 재정 마련을 위해 10만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께는 고급순목시계를 기념품으로 드리겠다는 광고를 홍보에 낸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25개 구(區) 중에 일부지역만 종친회가 활동하고 있고 그나마 20여명의 회원들이 청장년회원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 결속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거기에 서울이라 재력있는 족친들이 있어서 재정상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 준비위원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고 서울청장년회원들 역시 단합하여 준비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족친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하시죠.

준비위원장: 수도 서울 주최라서 족친들의 기대감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우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고 지방대회와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존

비해서 수도 서울인 만큼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한 큰 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최하면 30년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번 대회가 족친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회에 안동권문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임 회장님들도 참여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많은 족친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정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총장: 말씀을 들다보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준비위원장: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입니다. 무예정신은 힘든 시기에도 깨끗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요 어릴 적부터 수련해 왔던 무술과 무예정신을 사회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또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어릴 적이라면 언제부터이고 또 무술의 고수이신데 어느 정도 되시는지...

준비위원장: 고향이 경북 영주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때 1972년에는 태권도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검도, 합기도, 쿵푸 같은 무술도

연마해서 도합 27단입니다. 여기에서 제 욕심이 나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경호팀 훈련시킨 경험도 있는데 김영삼대통령 때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때는 시범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사무총장: 그렇군요. 무술을 연마하면 좋은 점이 있다면...

준비위원장: 무술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정신의 근육까지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또 무술인들은 상호 존중하는 정신을 몸으로 익힙니다. 이것이 무도정신이기도 합니다.

현재 머리에 지식만을 쌓을 뿐 몸과 마음을 같이 연마할 수 있는 교육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또 참을성이 없는 요즘 애들예겐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예를 통해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사무총장: 마지막으로 100만 족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비위원장: 100만 족친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 6일에 수도 서울에서 제 30회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열렬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초동)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전경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안내

대 회 개 요

- 일시: 2018년 5월 6일(일요일) 오전 10시
- 장소: 서울인재개발원
- 주최: 안동권씨 전국청장년회
- 주관: 안동권씨 서울청장년회
- 후원: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 일본(관서, 관동) 종친회



권승호 대회장

대 회 장: 권승호(서울청장년회장)

사무국장: 권순용(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후원계좌: 하나은행 054-002018-30605 예금주 권승호

전국청장년체육대회 후원금 기부자 명단

(2018년 1월 26일 현재)

성 명	금 액(원)	비 고
권승호	10,000,000	서울청장년회장
대종회	5,000,000	
권용렬	5,000,000	대종회 고문
권정일	2,000,000	대종회 부회장
권상문	1,000,000	
권기성	1,000,000	대종회 이사
권순용	1,000,000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권영을	200,000	
권정환	150,000	
권태일	100,000	
권순택	100,000	
권오갑	100,000	
권오혁	100,000	
합 계	25,750,000	

준비위원장: 권부성(세계전통호국무예총연합회회장)

E-mail: ankwon2695@naver.com



권부성 준비위원장